

잔재쓰레기 없는 청결도시 만든다

전주시, 생활쓰레기 문제 해결·차기 청소대행업체 선정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성료

성상별 수거에서 권역별 수거체계 전환 앞서 신도시개발지구 적용 후 확대 방안 검토
개정된 근로기준법(주52시간 근무) 맞춰 주5일제 시행 등 수거체계 효율화 방안도 마련

전주시가 생활쓰레기 처리시스템 개선을 통해 청소문제로 인한 시민 불편도 없애고, 잔재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생활쓰레기 문제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생활쓰레기 수거체계'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2년 후로 예정된 '권역별 수거체계'로의 전환과 2019~2020년 시와 청소업무를 함께 할 청소대행업체 선정 준비를 위해 추진된다.

현재 전주시에서는 △일반쓰레기

단독주택(가로청소 포함) 2개 업체 △일반쓰레기 공동주택 2개 업체 △음식물 단독주택 2개 업체 △음식물 공동주택 2개 업체 △재활용품 2개 업체 △대형폐기물 2개 업체 등 총 12개 업체가 시민들이 배출하는 생활쓰레기를 수거·처리하고 있다.

특히, 시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오는 2019년과 2020년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효천지구 등 신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권역별 수거체계를 시범적용하고, 이후 전 지역으로 확대할 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주52시간 근무제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300명미만 사업장 2020년부터 적용)에 따라 현행 주6일

근무제를 유지할지, 주5일 근무제로 전환할지, 6일 근무제를 유지하는 대신 업체별로 자체 휴무일을 정할지 여부 등 수거체계 효율화 방안도 찾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이날 착수보고회에서 이번 용역에 주요하게 다룰 주제인 △청소 근로자 주5일제 근무 △권역별 시범지역 운영 등에 대해 청소담당 공무원과 시민단체, 직영 환경관리원, 12개 청소대행업체 관계자 등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6년 8월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청소 수거체계 개편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후 이러한 계획에 따라 4년에 걸쳐 청소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다.

개편 계획에 따르면, 현재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등 쓰레기 종류별로 각각 다른 업체가 수거하고 있지만, 2년 후인 오는 2021년부터는 각 동별로 모든 종류의 쓰레기를 한 개의 업체가 수거하는 '권역별 수거체계'로 전환될 예정이다.

민선5기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각 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한 내실 있는 연구용역 수행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만족할 수 있는 청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시민들께서도 청결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쓰레기 배출 시간 준수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 쓰레기 배출 등 기초 질서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송효철 기자

세계 태권도인 전주한옥마을 방문

오목대·경기전 등 관람·체험

전주한옥마을에 전세계 30개국 태권도인이 몰려오면서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전주시의 계획에 힘이 실리게 됐다.

16일 전주시에 따르면, 제12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에 참가한 30개국 태권도 선수와 관계자 등 700여명이 이날 전주한옥마을을 방문해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를 체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2일부터 무주에서 열리고 있는 '제12회 세계태권도 문화엑스포'에 참가한 태권도인들로, 행사 5일차 문화탐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주한옥마을을 찾았다.

방문단은 이날 시에서 제공한 홍보책자를 활용해 오목대와 전통한

옥마을을 골목길, 경기전, 전통시장 등을 관람하고 체험했다.

시는 세계 태권도인의 이번 방문이 가장 한국적인 관광지인 전주한옥마을을 각 나라에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전주를 찾은 세계 태권도인들이 고국에 돌아가 전주한옥마을에서 체험한 대한민국의 전통문화와 전주지역 주요 관광지 등 문화자원을 알리는 홍보대사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전주한옥마을을 전세계인이 찾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부부체험 하는거야" 성폭행한 교사 '징역 9년'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이기선 부장판사)는 13세에 불과하던 여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B양을 성폭행하는 등 2013년 12월부터 4년간 집과 자신의 승용차, 자택, 학교 등에서 모두 18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이성적으로 좋아하며,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성숙하지 못해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거나 반항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4년 1월 결혼을 해 신혼 생활이었음에도 B양에게 "일일 부부 체험을 하는거야"라며 성폭행하고, 아내가 임신해 입원해 있는 중에도 성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이 불거지자 A씨는 지난해 12월 사표를 내고 학교를 그만뒀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에게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몰래 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가는 데 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자와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고무장갑공장에 화재 발생

16일 오전 10시경 전주 덕진구 팔복동의 한 고무장갑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검은 연기가 전주 시내를 뒤덮고 있다.

전북도문화관광재단 시간여행권역 홍보사업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주·군산·부안·고창 관광지 팸투어 온·오프라인 홍보 등

전북도문화관광재단과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시간여행권역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날 협약식에는 이병전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신병섭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장, 변주승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등 각 기관의 관

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서에 서명하고 전주시와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등 시간여행권역 팸투어 및 온·오프라인 홍보에 대한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약속했다.

업무협력 분야로는 ▲ 시간여행권역 팸투어 및 시간여행권역 온·오프라인 홍보 공동 진행 ▲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설 이용권의 상호간 제공

▲ 기타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으로 기간 간 상호협력을 통해 시간여행권역 홍보사업 성공적 진행을 위한 관학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위의 기관들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중 시간여행권역(7권역)인 전주, 군산, 부안, 고창의 지역별 대표관광지의 홍보를 위한 팸투어 실무협의 및 사업추진과 온·오프라인 홍보를 위한 활동에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시내버스 친절도·이용율 높인다

인센티브 지급·시내버스업체간 선의의 경쟁 유도 노사관계 안정 등 운전자 친절 향상 위한 동기부여

전주시가 전주시내버스 업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대중교통 친절도와 이용률을 높이기로 했다.

시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경영개선과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 쾌적하고 안전한 운송서비스 유도를 위해 도입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안전·경영·서비스 평가의 2017년도 평가 결과에 따라 각 시내버스 회사별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올해 인센티브 지급액은 총 2억5000만원으로, 지난해와 다르게 경영합리화와 안전·운행관리, 승객만족도 각 분야별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인센티브가 골고루 돌아가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전체 인센티브 중 안전·운행관

리 부문(1억원) 인센티브의 60%인 6,000만원과 승객만족도 부문의 인센티브인 1억원을 합한 1억 6,000만원이 이달 중 운전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될 예정이다. 시내버스 운전원에게는 1인당 회사에 따라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 급여 외로 지급된다.

또한, 경영합리화부문 인센티브(5,000만원)와 안전·운행관리부문 인센티브의 나머지 4,000만원을 합한 9,000만원이 사측에 지급돼 체불임금 해결 등 목적에 맞게 사용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5년 10월 시민의 버스위원회에 의해 이듬해인 지난 2016년부터 시내버스 운송사업 안전·경영·서비스 평가를 시행해 오고 있다. /송효철 기자

외도 의심해 내연남 중요부위 자르려 한 여성 구속영장

내연남의 외도를 의심해 가위로 중요부위를 자르려 한 40대 여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16일 특수상해 혐의로 A(47·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24분께 익산시 마동의 한 주택에서 잠을 자던 내연남 B씨의 중요부위를 자르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가 잠에서 깨 자신을 제지하자 B씨의 등을 가위로 2차례 찢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과 1년 넘게 동거한 B씨의 외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뉴시스

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테 홍



서바이벌

레프팅 / 카약 ATV / 버기카

스키 / 보드 펜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485-2)

대표 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피인 스키 및 점프선수활동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국제대회 다수 참가 및 우승 동계U대회 국가대표 출전 국가대표 코치 역임 일본 스포츠 국제대회 참가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NSL/NSL2)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버트러 지역 취득 응급처치 요원 자격증 취득 레프팅 가이드 자격 취득 수상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 연)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
---	---